

“광주 열정에 감동...배구 중심도시 성장 적극 지원”

광주시와 연고지 협약 체결...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장 매튜 대표 일문일답

유소년 배구단 지원 등 인재 양성 연고지 계약 5년만 생각하지 않아 광주가 우리 집...100% 정착할 것



장 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

장 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이사는 13일 “앞으로 광주가 여자배구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매튜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광주시와 여자프로 배구단(이하 페퍼배구단)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광주지역 배구 인재 양성을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쾌척했다. 다음은 장 매튜 대표와 일문일답.

-광주를 연고지로 택한 배경은.

▲사실 연고지로는 성남이 맞다고 생각했다. 임직원 95%, 고객 65%가 수도권 거주자인데, 이들에게 행복과 혜택을 주는 것이 배구단 창단 목표였기 때문이다. 연고지 관련해 많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결정적 계기는 가장 처음 접한 게 이용섭 시장의 메시지였다. 이병훈·민형배 국회의원과 광주가 얼마나 페퍼저축은행을 열망하는지 가슴으로 이해하게 해 줬다. 광주 TF팀의 놀라운 발표(프리젠테이션)를 보고 개인적으로 광주에 욕심이 났다. 이런 곳에서 경기하면 팀도 잘 할 것 같고, 광주의 열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역공헌활동 계획은 있는지.

▲페퍼저축은행은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광주에서 비즈니스 모델 탐색은 물론 투자와 인재 채용도 하겠다. 특히 지역배구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 광주 유소년 배구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13일 지역배구인재육성 후원금 기탁은 첫 발자국에 불과하다.



13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페퍼저축은행 여자프로배구단 연고지 유치 협약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 매튜 페퍼저축은행 구단주가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앞으로 광주가 여자배구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연고지 계약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

▲연고지 계약 기간 두고 고민이 깊었는데, 5년으로 정했다. 물론 5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속속·훈련장을 성남에 두기로 했지만, 페퍼배구단은 100% 광주에 정착할 것이다. 5년 후 광주

로 완전히 올 것이라고 약속한다.

-일부 광주 경기를 성남에서 치를 계획도 있던데.

▲페퍼배구단 창단 이유는 명확하다. 직원들에게는 행복한 직장, 고객에게는 즐거운 은행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홈 패밀리를 여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 그래서 처음엔 광

주를 연고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광주가 우리 집이다. 절대 5년만 생각 하는 게 아니니, 지켜봐 달라.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광주에 흠뻑이 만들어졌다. 광주 팀이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핸드볼 명가 효동초 “부상 위험 없이 운동하고 싶어요”

코트 표준규격 미달에 부상 위험 커 다른 학교 체육관에서 연습 강당 증축 예산 25억 더 필요한데 동부교육청은 추가예산 난색

‘광주 핸드볼 명가’ 효동초 강당 증·개축 사업이 ‘예산 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효동초등학교와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중흥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에 발맞춰 효동초 증·개축 사업을 시작했다. 재개발로 인근에 4400여 세대가 새로 입주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학교 수용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증·개축 공사 연면적은 2540㎡이며 총 사업비는 59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층고는 3층으로 각각 1층은 급식실, 2층은 특별실(도서관 등), 3층은 강당 겸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설계 업체를 공모하고 설계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강당 증·개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국제 표준 규격을 갖춘 핸드볼 경기장을 설치하려면 예산 25억여원이 더 필요해 사업을 일시 중지시켰다.

설계안에서 경기장 규모를 표준 규격에 한참 못 미치는 길이 27m, 너비 18m로 설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제 표준 핸드볼 경기장 규격은 길이 40m, 너비 20m다.

27×18m 경기장은 기존 강당에 설치돼 있던 경기장과 비슷한 규모다. 이 경기장은 공간도 좁은 데다 연단 등과 인접해 있어 부상 위험이 커 대회 연습 장소로 부적절했다. 때문에 효동초 핸드볼 선수들은 지금까지 조선탄 등 다른 학교 체육관을 빌려 대회를 준비해 왔다.

건물 설계 담당자는 학교 요구에 맞춰 새로 강당을 설계할 경우, 총 공사비가 8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예산 25억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예산 편성이 확정된 사안인데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본청 행정예산과는 물론 체육예술융합교육과에도 추가 예산 지원을 문의해 봤으나,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교육장 이하 간부들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일정도 빠듯하다. 신축 강당은 오는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8월초에 준공, 2022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일정에 맞추려면 최종 설계안이 오는 8월까지 완성돼야 한다. 사업 예산 또는 연면적이 당초 사업계획서 기준 30% 넘게 증감될 경우, 광주시 학교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해 촉박한 상

황이다.

효동초는 설계 작업 중단을 요청한 채 추가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교사 리모델링을 미루고 강당 증·개축에 예산을 집중하는 등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개축 사업에 앞서 교육청과 학교 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효동초 측은 사업에 관해 교육지원청 등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는 2~3년이면 대다수 구성원이 교체되기 때문에, 사업을 꺾고 있는 실무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명숙 효동초 교장은 “지금은 ‘기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핸드볼협회부터 재개발 사업체 등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있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효동초 핸드볼 선수들을 위해 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건설사 등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년간 운동선수 수입 1위 UFC 스타 맥그리거 2위 메시·3위 호날두

UFC 페더급 라이 트급 챔피언을 지낸 종합격투기 스타 코너 맥그리거(33·아일랜드·사진)가 최근 1년간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종목에 통틀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운동선수로 조사됐다.



맥그리거는 13일 (한국시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최근 1년간 운동선수 수입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맥그리거는 1억8000만달러(2038억원) 수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수입인 격투기로 얻은 수입은 2200만달러에 그쳤다. 대부분 수입이 옥타곤 밖에서 나왔다.

맥그리거는 자신이 론칭한 위스키 브랜드 ‘프로퍼 트웰브’를 비롯해 판타지 스포츠 사이트인 ‘드래프트킹’, 비디오게임 ‘디스포이아: 컨테스트 오브 히어로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루츠 오브 파이트’ 등으로 1억5800만달러의 수입을 챙겼다.

FC바르셀로나 스타인 메시는 소속팀에서 받는 천문학적인 연봉, 아디다스 후원 계약 등을 포함해 총 1억3천만달러를 벌어들여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메시와 함께 세계 축구계를 양분하는 호날두(유벤투스)가 1억2000만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NFL 달러스 카우보이스의 쿼터백 프레스콧(1억7500만달러),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의 간판스타 르브론 제임스(9650만달러)가 4~5위를 차지했다.

이번 리스트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최근 12개월간 모든 운동선수의 수입을 토대로 작성됐다. /연합뉴스

조성재 남자 평영 100m 한국신기록

1분00초11...2년여만에 갱신

조성재(20·제주시청·사진)가 남자 평영 100m 한국 기록을 2년 2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조성재는 13일 제주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1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첫날 남자 평영 100m 예선 2조에서 1분00초11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문재권(서귀포시청)이 2019년 3월 경영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작성한 종전 한국 기록(1분00초20)을 26개월여 만에 0.09초 단축했다.

조성재는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한국 신기록 포상금 100만원도 받았다.

다만 ‘올림픽 자격기록’ (Olympic Qualifying Time·OQT), 이른바 A기준기록(59초93)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림픽 선발기록’ (Olympic Selection Time·OST)인 B기준기록(1분01초73)은 가볍게 넘어섰다.

이번 대회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를 뽑는 자리다. 올림픽 경영 경기에는 국제수영연맹(FINA)이 승인한 대회에 출전해 A기준기록을 통과한 선

수 중 종목별로 한 나라에서 두 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만약, A기준기록 통과자가 1명뿐이면 그 종목에서는 해당 선수만 자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A기준기록 통과자가 없으면 B기준기록을 충족한 종목별 국내 1위 중 FINA로부터 초청받은 선수가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는다.

이날 예선 2조에서는 물론 전체 참가선수 21명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한 조성재는 14일 열린 결승에서 A기준기록에 재도전한다.

한국 기록을 빼앗긴 문재권은 1분01초29의 기록으로 3조 1위, 전체 2위로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올라 조성재와 자존심 건 대결을 벌이게 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스파이럴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 2관 아들의 이름으로, 랑 더 라스트 챔퍼
- 3관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 4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5관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 6관 더 스파이
- 7관 스파이얼, 버킹엄 아스트리트, 키퍼스
- 8관 스파이얼
- 9관 아들의 이름으로, 슈퍼노바
- 10관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랑 더 라스트 챔퍼
- 11관 내일의 기억, 어른들은 몰라요
- 12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 13관 크루즈 패밀리: 뉴 에이지
- 14관 극장판 공순이: 장난감나라 대모험
- 15관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일시: 2021.05.28.(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윤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6. 26.(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